

재단법인 '남도장터' 출범 준비 착착

농식품부 설립허가 통보 이어
전남도 이사회 열어 사업계획 의결
500억원대 쇼핑몰로 성장
전문 운영체계 갖춰 새 출발

전남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을 거래해 500억원대 쇼핑몰로 성장한 남도장터가 재단법인으로 새 출발한다. 규모에 맞게 전문 운영체계를 갖춰 전 세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공공형 종합 유통 플랫폼'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

이날 이사회에는 이사장인 문금주 행정부지사와 이석인 목포대 경영대학장, 송경환 순천대 교수 등 유통 및 쇼핑몰 전문가로 구성된 이사 10명 전원이 참석했다.

전남의 청정한 산과 들, 바다에서 생산한 농수축산물은 맛과 품질이 뛰어나 전국 으뜸 식재료로 인정받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는 전남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 2004년부터 운영 중이다. 생산자와 소비자 상호 신뢰를 꾸준히 쌓아 연매출액 550억원의 대형 온라인 쇼핑몰로 성장했다.

(재)남도장터는 농어민과 소상공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정적 품질관리, 효율적 유통관리, 전략적 홍보·마케팅, 체계적 고객관리 등 쇼핑몰 전반의 역량을 강화하고, 온·오프라인 판매뿐만 아니라 해외배송과 농어촌 체험상품까지 영업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정책 지원에서 소외되기 쉬운 고령농, 여성농, 소상공인 등의 판로 지원을 확대해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최신 소비성향을 반영한 상품기획(제품개발 및 브랜딩)부터 홍보·마케팅, 교육, 판매, 유통까지 맞춤형 종합지원이 가능해 전남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문금주 부지사는 "(재)남도장터가 생산자와 소비자 상생에 가치를 둔 우리나라 대표 공공형 종합 유통 플랫폼으로 성장하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재단법인이 지역에서 생산한 우수 농특산물이 세계시장에서 케이푸드(K-food) 한류를 선도하는 든든한 지원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월 말 기준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에는 1801개 업체, 3만1347개 상품이 입점했다. 전남 농어민·소상공인은 누구나 입점 신청을 할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목공예 콘테스트 대상 화순 김관철씨

입상자 11명에 상패·상장 전달

전남도가 생활 속 국산 목재 이용으로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개최한 제4회 전라남도 목공예 콘테스트에서 화순 김관철씨가 '북뚜꺼비와 무드 등'으로 대상을 차지했다.

상은 '시계속의 시간'의 고희 윤금일씨, '좌등'의 이영수씨가 선정됐다.

생활·체험 소품 부문 최우수상은 '책상위의 작은 여유'의 고희 김준영 씨, 우수상은 '다나무 환경미화통'의 담양 홍정민 씨와 '네모세모 메모꽂이 만들기'의 완도 김동인 씨, 장려상은 '쟁반'의 강진관감인 씨와 '우드스피커'의 완도 조규욱 씨가 받았다. 전남도는 오는 27일까지 순천 목재문화지원센터 1층 전시실에서 우수작품을 전시할 예정이며 목공예에 관심있는 도민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김관철씨가 영예의 대상을 차지한 것을 비롯해 목공예 최우수상은 '16개 소반'의 화순 남용현씨, 우수상은 '산뜻 스톨'의 장흥 박형모씨와 '각질마 내가 줄을 잡고 있어'의 장흥 최민씨, 장려

문미란 전남도 산림보전과장은 "목재는 친환경 탄소흡수원이자 탄소 저장고 역할을 톡톡히 한다"며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시대 국산목재 이용이 생활화되도록 저변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자치경찰-마을공동체, 풀뿌리 치안모델 발굴 나섰다

활동가 50여명 참석 협업 워크숍
생활안전·사회적 약자 보호 등 논의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8일 나주에서 '자치경찰-마을공동체 간 협업 워크숍'을 개최하고 풀뿌리 치안모델 만들기에 나섰다. 워크숍에는 각 시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관계자를 비롯해 마을공동체 활동가 50여 명이 참여, 치안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이 직접 주도하는 지역 치안활동 모델을 만들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사진> 마을공동체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지역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스스로 해결하는 자치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이웃 간 관계망이다.



주요 사업 분야는 생활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경비 분야로 신규 시설 설치, 시설 개선, 장비 구입 등 마을 자체적으로 '지역안전주민참여단'을 구성해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또 위원회 자체 사업뿐만 아니라 기존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도 자치경찰 활동 분야를 신청토록 안내하고 주민자치 치안활동으로 안전순찰, 안전지도 제작, 범죄 예방 홍보·

캠페인, 취약 요소 점검 등을 통해 풀뿌리 자치치안 모델을 제시했다.

조만형 전남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제 성공을 위해서는 주민 참여가 필수적이다"며 "마을공동체를 통해 지역 치안서비스 만족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주민과 고민하고 이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비만 예방관리 사업 최우수기관 표창

경연대회·걷기 프로그램 호평

전남도가 비만 예방관리에 기여한 공로로 광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최우수기관 표창인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비만 인식개선을 위한 합동 캠페인 및 누리소통망(SNS)을 활용한 홍보, 아동 비만예방활동, 도민 참여를 유도한 신체활동경연대회 및 일상 속 걷기 생활 챌린지 등 온·오프라인

에서 적극적인 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남도는 비만 인식 개선을 위해 지난 10월 한 달간 '가볍게 걷고, 마시고 즐기자'라는 주제로 시·군 합동캠페인 진행, 누리소통망 건강소통 채널 운영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또 아동 비만 예방 사업인 '보건소 건강강 돌봄 놀이터' 34개소를 운영해 참여 아동의 비만을 감소와 식생활 개선, 신체활동 증가 등의 성과를 거

뒀다. 특히 지난 10월 장흥통합의학박람회장에서 열린 신체활동경연대회는 올해 11번째 이어온 대회로 22개 시·군에서 1000여 명이 참여해 큰 인기를 끌었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등 생활습관 변화로 비만율이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모바일 헬스케어, 일상 속 걷기 실천 챌린지(워크온), 줌(ZOOM)을 활용한 실시간 영양·운동 교육 등 비대면 사업을 적극 추진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테크노파크 '탄소중립기술개발' 설명회

산학연관 관계자 150여명 참석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가 최근 청사 대강당에서 '탄소중립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및 '산업기술 R&D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지역 중소기업을 비롯해 순천대, 전남대, 목포해양대, 전남도환경산업진흥원, 녹색에너지연구원, 중소벤처진흥공단, 여수시청 등 산학연관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KEIT) 박재용 탄소중립R&D팀장은 '탄소중립핵심기술개발사업'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참석자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탄소중립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은 산업공정부문의 탄소중립

핵심 기술 확보를 통해 탈탄소 산업구조로의 대전환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총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30년까지로, 총 사업비는 9352억원(국비 6947억원)이다. 업종별로는 철강 2097억원, 석유화학 1858억원, 시멘트 2826억원, 반도체·디스플레이 2571억원이다. 탄소다배출 업종에 대해 탄소중립을 위한 공정 기술개발 및 실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KEIT 고병철 산업기술정책담당장은 '글로벌 유망기술과 R&D전략'이라는 주제로 미래 10대 유망기술과 글로벌 메가트렌드를 소개하면서 정부의 산업기술정책 변화에 대응한 R&D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30일까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500곳 모집

전남도가 오는 30일까지 2023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참여 마을을 공개 모집한다. 이 사업은 주민 스스로 마을 문제를 해결해 자립형 마을공동체로 성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의 종류는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등이 있다.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은 소멸해가는 마을에 주민 스스로 마을 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어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자립형 마을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2023년

400개 내외의 공동체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공모는 공기빛깔사업의 경우 씨앗, 새싹, 열매단계로 나눠 이뤄진다. 사업비는 씨앗 500만원, 새싹 1000만원, 열매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은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100~150개 지원을 통해 500개 돌봄공동체 육성을 목표로 한다. 매년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해 사업 종료 후 사업평가를 통해 최대 5회 지원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